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코로나 손실보전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 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

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상장사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8월 말까지 신고 납부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올해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안내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등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신청을 받아 기본 3개월간 납부연장을 허용하되 어려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